‘찾아가는 동포재단’ 아시아 지역 간담회 결과

2021년 4월 7일

1. 개요

▢ 일시 : 4. 7.(수) 15:30~ 17:30 (한국시간 기준)

▢ 방식 : 화상 간담회(Cisco 이용)

▢ 참석자 : 22명

○ 재외동포재단 : 김성곤 이사장, 이영근 기획이사, 박종환 동포단체지원부장, 박한솔주임

○ 아시아 지역 16개 한인회장(12개 국가, 14개 공관), (사)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심상만 회장, 김교식 서울사무소장

*** 일부지역 회장 Cisco 시스템 접속이 원할치 않아 참석치 못하였음.**

연번	관할 공관	한인회	회장	이력 사항
1	주라오스(대)	**라오스한인회**	**정우상**	前 제이패밀리(자동차 판매업) 회장
2	주몽골(대)	**몽골한인회**	**박호선**	시그마 몽골리아대표
3	주방글라데시(대)	**방글라데시한인회**	**류용오**	
4	주호치민(총)	**바리아붕따우한인회**	**양철수**	
5	주호치민(총)	**호치민한인회**	**김종각**	애드윈파트너스 컨설팅 펌 대표
6	주베트남(대)	**하노이한인회**	**윤상호**	
7	주스리랑카(대)	**스리랑카한인회**	**변성철**	
8	주싱가포르(대)	**싱가포르한인회**	**윤덕창**	現 동남아수입상연합회 회장
9	주인도(대)	**인도한인회총연합회**	**박의돈**	現 실라인프라텍 대표 現 다산네트웍스 인도법인 이사 現 CJ 인도법인 사외이사
10	주인도(대)	**인도(델리)한인회**	**강호봉**	現 HGK Enterprises 대표 前 삼성물산 인도법인장
11	주첸나이(총)	**인도첸나이한인회**	**조상현**	
12	주인도네시아(대)	**인도네시아한인회**	**박재한**	現 코참 고문 現 인도네시아 한국 국제학교 이사장 現 월드옥타 고문
13	주시엠립(분)	**시엠립한인회**	**박우석**	드림 워더스 대표
14	주태국(대)	**치앙마이한인회**	**박용빈**	윈저트레이딩 대표
15	주필리핀(대)	**중부루손한인회**	**이창호**	現 Phil-hanin security agency 대표
16	주홍콩(총)	**홍콩한인회**	**류병훈**	Chan Mee Real Estate Agency eovy

2. 주요 안건

▢ 코로나19로 인한 동포사회 현황 및 대응 방안

▢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및 참정권 보장 방안.

▢ 기타 협의사항.

3. 개회 및 인사말

▢ 김성곤이사장 : 재외동포재단은 작년 10월초 워커힐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대면, 비대면으로 개최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뵙고 어려운 현황들을 청취 해야하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되어 아쉽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회의는 세계 10개 총연중 2번째로 아시아 지역이 하게 되었으며 (사)아총연 심상만회장이 맡아 아시아 20여개 국가 도시별로 한인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많은 회장님들을 초청하려 했으나, 20여분만 초청 각국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 심상만회장 : 아총연 한인회장님 23일 뵙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곤이사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작년 부임 오랜 정치경험과 국회에서도 다년간 동포들 업무를 관장하셔서 우리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며 무엇이든지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아총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임을 당부 드립니다.

▢ 이영근이사 : 지난 1월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성곤이사장님을 모시고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사장님의 방침도 "찾아가는 동포재단"이란 주제로 한인회장님들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환부장 :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에서 동포단체지원 업무 맡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특히, 오늘 아시아 아총연 한인회장들님들과 간접적이나마 화면으로 모시게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열심히 도움을 주는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과 요약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정부에 건의 및 요청사항)

▢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금 요청

▶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중 어려운 한인회에 몇 천불씩이라도 배정되도록하고 향후 배정시 어려운 지역에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 교민들에게도 백신 접종 가능 및 자가격리 면제또는 축소요청

▶ 현실적으로 백신 해외로 가져가 접종은 어려우나 재외교민들은

국내 입국시 접종토록하고, 자가격리 면제는 현재는 못해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 관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정기 항공 노선 폐쇄지역의 취항 재개

▶ 동포재단이 할수 있는 한 노력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외동포청의 설립

▶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중에 있으며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가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우편■전자투표 촉구

▶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청원서를 50부 제작 심상만회장과 함께 청와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안부등 방문 전달해 국회에서 법안 발의 되도록 노력 한다. 해외 우편■전자투표 도입은 간단치 않키 때문에 우선, 내년 대선에는 몇 개국을 실험해 보는 것으로 도입이 쉽지 않아 전면은 아니라도 부분적이라도 개선 되도록 노력 한다.

4. 한인회별 주요 건의 및 요청사항

▢ 라오스 정우상회장 :

- 라오스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코로나 초기 모든 국경을 봉쇄하여 확진자가 49명에서 46명이 완치되었고 현재는 3명 입니다.
- 직항이 4편 있었으나 작년 3월부터 스톱, 현재는 전세기 1~2편이 운영중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30만명중 절반이었으나 하늘길이 막혀 관광객 수입으로 연명하는 라오스 교민은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 국민의 4대의무중 외국에 살아 납세를 못하고 있지만, 5대 권리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를 보장 받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3천명중 교민수가 1,500명이며 라오스국적은 1명으로 거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외교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등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몽골 박호선회장 :

- 김성곤이사장께서 부임 해외교민을들 위해 신경써 주심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년 예산이 651억원으로 92년 설립한 코이카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어 재외동포재단이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증원을 부탁드립니다. (* 동포재단 예산 서울 대형APT 10채 밖에 안되는 규모)
- 저희 교민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모국이 어려울때 코뭍은 돈을 모아 (성금 및 마스크등) 지원 한바 있으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예산이 적어 지원을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 역량이 있으신 이사장님께서 예산 확보 많은 지원 되도록 요청 드립니다.

▢ 베트남 붕따우 양철수회장 :

- 베트남은 현재 하노이 윤상호회장, 호치민 김종각회장을 중심으로 베트남정부와 교민들 불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항만이 있는 붕따우는 러시아 상선이 들어와 확진자가 더러 나오고 있어 15일 격리 시행중이며 교민 애로사항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염려입니다. (* 교민도 백신을 맞을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베트남 호치민 김종각회장 :

- 호치민 교민수 12만명, 투자처는 5천여개로 백신 접종이 언제쯤 가능 한지 한국 정부가 투자처 보호측면에서 백신 접종 지원 요청
- 베트남은 백신 수입량 3천만중 우선 접종자 30%에게 접종 그 이후 일반인들에게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유선 접종 할 예정이나 3천만명 분으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성곤이사장 중간 답변 : (백신 접종의 건)**

- 대한민국은 현재 75세이상 부터 접종 시작 외국인으로 등록되면 백신 접종 가능, 교민을 위해 외국에 가서 접종은 불가능 합니다.
- 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빨리 접종 해달라는 의견 건의는 하고 있는데 우선적 배려는 못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하노이 윤상호회장 :

- 베트남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2,500명, 지역 확진자는 0명, 매일 유입 확진자 수는 4~6명 수준으로 마스크를 안쓰고 생활하는 청정 지역으로 생산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나 교민수 20만명에서 코로나로 17만명으로 감소 다시 원상회복중 입니다.
- 베트남의 경제는 핸드폰 매출 증대 요인으로 어니써프라이즈이며 생산기지 활동에는 위축이 없다. 그러나 최근 서기장, 주석, 총리, 국회의장등이 바뀌어 이제부터 새로 임기 시작 한국의 모든 진출 기업뿐 아니라, 교민들도 바뀌는 체제에 매우 민감한 실정 입니다.
- 백신 접종 1순위 군, 공무원, 2순위 국민과 거주자, 한국인은 이후 향후는 백신여권을 도입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부터 관광도 가능 움츠렸던 경기 회복 기대하나 가장 현안은 백신 접종 입니다.
- 최근 설훈 국회의원 주관 통포청에 관한 온라인 회의가 있었는데 청이든 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의 생각 전환이 중요하다 봅니다. 750만 교포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 하는데 가만히 나두면 자산으로의 가치가 없다 본다. 정부에서는 도울까가 아니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로 생각 한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으로 생각의 전환 필요 합니다.
  - 재외동포재단 예산 600억원으로는 750만 재외교들에 대한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니 예산 증액이 꼭 필요 합니다.

▢ 스리랑카 변성철회장 :

- 스리랑카는 인도 옆 조그만 섬으로 교민 6~700명인 한인회입니다. 코로나 총 확진자수는 93,000명, 매일 100~150명 발생 정부에서 잘 관리 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 한국인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 스리랑카 근로자가 한국에 35,000명이 나가 있어 한국과는 아주 우호적이나, 지난 유엔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찬성을 하는 바람에 (기권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분위기가 좀 않좋습니다.

▢ 싱가포르 윤덕창회장 :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비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가능 현재 45세이상은 거의 접종, 45세이하 신청 받고 있으며 향후, 백신여권으로 자가 격리 없이 왕래가 가능 합니다.
- 싱가포르 한인회는 어려운 교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난 지원금 8천만원을 모금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으나 장기화로 인해 여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정부의 주도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 합니다.

▢ 인도 총연합회 박의돈회장 :

- 인도는 교민들 업종이 숙박, 물류, 관광, 요식업을 주로하고 있어 1년 넘게 피해가 크고 어렵습니다. 대기업 현대, 삼성 협력업체는 회복중, 일반 업체는 일부 회복중이나 최근 확진자가 증가해 걱정 그러나 인도가 백신 생산국으로 교민들도 민간 병원에 신청 하면 유료로는 맞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애로사항은 2가지로 첫째 정기 항공편 운항, 둘째 자가격리 면제로 미주지역에서 청와대에 청원중으로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 인도는 현재 한달에 1~2편 임시 항공편만을 운행 무계획적이고, 항공료가 비싸 출입국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최소 주1회는 정기 노선이 가능 하도록 에어버블 협정을 부탁드립니다.
  (* 유럽, 영국, 일본등 10개국은 인도와 에어버블 협정을 하여 정기 노선을 운항중이나 한국은 거부하여 임시편만 운행중으로 임시편도 매번 인도 정부에 자국민이 20%이상 채워야만 허가, 불허시 갑자기 취소되어 출국 못하고 귀가하는 사례 발생 함.)

▢ 인도 델리 강호봉회장 :

- 인도는 다행스럽게 글로벌 제약회사가 백신 위탁생산을 하고 있어 45세이상은 무료 접종 가능 합니다.
- 제일 큰 문제는 항공편 문제로 인도 정부가 허가 해야만 특별기가 취항 가능하나 갑자기 취소 경험이 있어 주1회, 최소 한달 2~3편 정기편이 운행되도록 요청합니다. (정기편은 운항 허가 없이 가능)

▢ 인도 첸나이 조상현회장 :

- 인도 첸나이는 현대차, 삼성전자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정기 항공편이 중단 한인회 주관 1년째 특별 전세기를 준비 15편, 왕복 30회 운항하고 있어 출, 입국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한국 정부가 인도와 에어버블 협정을 거부해 정기편 없고 두바이등 3국을 통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어 상당히 불편 합니다.

▢ 캄보디아 시엠립 박우석회장 :

- 시엠립 한인회는 앙크로와트 인근 조그만 도시로 기업체도 없고 교민 대부분 관광업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교민수가 2천명중 1,500명이 떠나고 현재 500명만 남아 있는 아주 작은 한인회로 한인회장이 부자가 아니면 취약계층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 시엠립 교민은 관광객이 아니면 1원도 벌수 없어 교민들은 멘붕 상태로 있으며 작년 12월 동포재단으로 부터 7천불을 지원받아 12월~2월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쌀, 생필품등 도왔으나, 이제는 전부 소진한 상태로 외부에 어려우니 도와 달라 요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1만~10만씩 모금하여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너무도 힘듭니다.
  - 2021년 재외동포재단 신청금도 작년 12월 신청 확인해보니 3월, 4월 심의 5월에 준다하며 얼마를 주는지 알수 없어 답답 합니다.
    ↳ **동포재단 답변 : 더 많이 못주고 7천불 배정 지급하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박재한회장 :

- 인도네시아는 1월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 하루 30만명씩 접종 1차 900만명, 2차 440만명 접종하였으나 외국인은 접종 안됩니다.
- 이사장님께 건의사항은 해외동포들이 주재국에서 못맞으니 한국에 귀국 순서대로 맞을 때 동포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혹은 단축, 또, 백신 두번 맞지 않고 한번에 맞는 것을 해주실수는 없은지요?

▢ 태국 치앙마이 박용빈회장 :

- 태국 방콕은 확진자가 하루 300명씩 나오나 치앙마이는 청정지역 입니다. 그러나 백신 보급률은 1%로 외국인은 언제 맞을지 모르고 있어 교민들은 불안감에 지내고 있습니다.
- 치앙마이도 다른나라와 동일하게 생산공장도 없고 오로지 관광객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민 대부분 생활이 곤란한 실정으로 재외동포재단에 신청한 지원금을 조기에 집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필리핀 중부루손 이창호회장 :

- 중부루손 한인회는 교민 23,000명중이었으나 주로 관광객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 사망자수도 1,800명나 발생하여 많은 교민들이 지역을 떠나 현재는 8천~1만명이 거주중하고 있으며 4월1일~13일까지는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한인회에서는 취약계층 870명에게 쌀, 마스크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 자체적 지원은 한계 어려운 실정입니다.

▢ 홍콩 류병훈회장 :

- 홍콩 한인회는 교민 역사 72년으로 교민수 2만명의 한인회입니다. 백신 접종은 내, 외국인 구분 없이 홍콩 아이디 있으면 접종 가능
- 건의사항은 두가지 첫째는 참정권 촉구 재외국민도 우편■전자투표 보장 해주십시오. 두번째는 재외동포 자녀의 보충역 병역 의무시에 국내 연고가 없을시 국내 복무가 어려우므로 해외공관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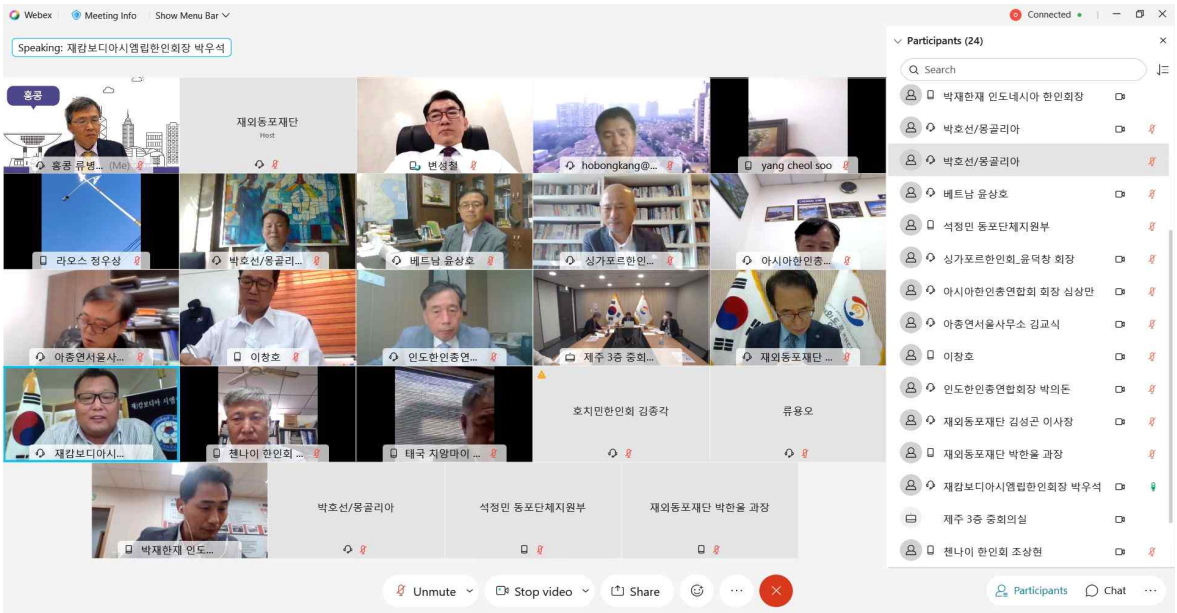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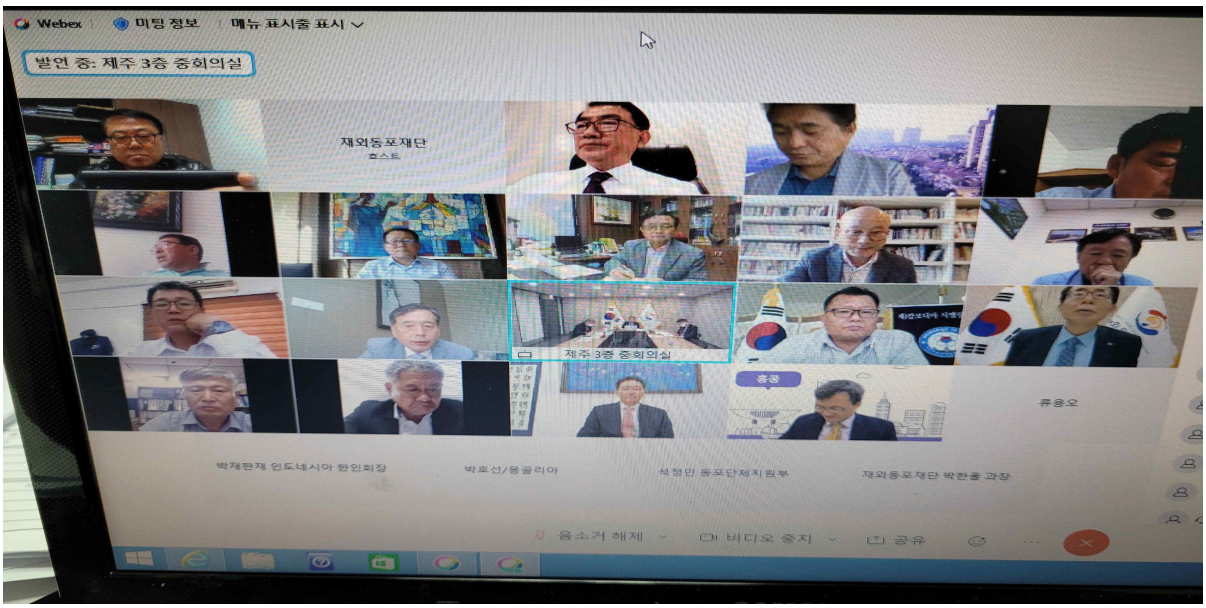
▢ 아총연 심상만연합회장 :

- 전세계 10개 대륙중 아시아 교민은 대부분 한국 국적으로 한국과 가까워 자주 왔다 갔다하며 사업과 관광업등 한국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인회장님들이 주요 건의사항 3가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어려운 취약계층만이라도 지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둘째, 임시 항공편을 정기노선이 가능토록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 재외동포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토록 해주십시오.

- 특히, 아시아 지역은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교민들이 많아서 젊은 취약계층들이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으니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 지원금 배당이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기 항공편이 가능토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

【재외동포 주관 아시아 지역한인회장 화상 회의사진】